

한·중 미각어의 신체화 양상 대조 연구: '맵다'류 어휘를 중심으로

관영욱
(중앙대학교)

Guan, Yongyu. (2023). A contrastive analysis of the embodiment of tasty terms 'Spicy(La)' in Korean and Chine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3), 1-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expansion and conceptualization of their meanings targeting vocabulary in the Korean and Chinese taste terms '맵다' and '辣'. First, by comparing the semantic items described in dictionary and analyzing Corpus data, the rich expression patterns used in everyday life were classified into taste areas, sight areas, smell areas, hearing areas, emotion and attitude personality areas, work and event handling areas, human areas, and weather areas. Secondly, for the process of constructing vocabulary meanings from this study, the hybrid space and expression structure of each meaning were organized and analyzed using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a core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presented by Fauconnier & Turner(1998).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vocabulary meaning expansion process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physical experience. Moreover, negative and positive feelings about spicy taste appear as an extension.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of vocabulary is not only based on human experience, but also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anguage expression due to cultural differences.

주제어(Key Words): 미각어(taste-terms), 맵다(spicy), 신체화(embodiment), 개념적 혼성 (conceptual blending), 의미 확장(meaning extension), 한중 대조(Korean-Chinese contrastive study)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기본적인 오감 중 미각(味覺)은 언어적으로 나타난 감정 표현을 살펴보고, 미각어의 의미 확장을 통해 표현된 감정 표현을 신체화의 인지언어학적 관점¹⁾에서 고찰할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몸의 감각기관은 사람이 세계와 소통하는 본원적이며 기본적 통로(임지룡, 2017, p. 335)’로 본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언어·문화권의 사용자들은 미각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다르게 개념화하기도 하고,²⁾ 그들의 의미 확장이 다르게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중 ‘맵다’류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신체화의 인지언어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어휘 의미 확장이 신체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언어·문화권에 있는 한·중 언어 사용자의 미각에 대한 인지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각은 보통 혀에 있는 미뢰(味蕾)가 침에 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여 느끼는 감각이며(이범열, 2016, p. 432), 대표적으로 ‘시다/酸’, ‘달다/甜’, ‘쓰다/苦’, ‘맵다/辣’, ‘짜다/咸’와 같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맛이 있다. 미각은 전형적으로 신체의 체험을 통해 의미 전이가 이루어지는 기본 감각이며 미각에 대한 신체 경험은 범문화적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김순자, 2015, p. 102).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미각어를 통해서 미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개념화하기도 한다.³⁾ 문금현(2015)의 연구에서 말뚝치에 출현하는 미각어 포함 문장들을 분석하여 미각어의 사용 분포는 ‘달다>쓰다>맵다>시다>짜다’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달다’와 ‘쓰다’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⁴⁾ 사용 빈도로 3위에 차지하고 있는 ‘맵다’류 미각어를 논의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개별 언어에서의 미각어에 대해 많은 업적을 축적해 왔다. 이는 주로 한국어 미각어에 대한 연구(이승명, 1988; 김중현, 2001; 황혜진, 2002; 이경수, 2012; 김해미, 2014 등), 중국어 미각어에 대한 연구(呂貞男, 2012; 이범열, 2016 등),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한·중 미

1)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신체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상정되어 온 것처럼 자의적(arbitrary)이지 않고 신체적 체험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동기화(motivated)되어 있다고 본다(석수영, 2014, p. 192).

2) 언어적 표현의 개념화는 언어사용자가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대상이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사고의 체계를 반영한다고 여기며 언어 연구를 통해 인간의 개념화 과정을 해명하려 한다(임지룡, 2008, p. 14).

3) 예를 들어 ‘코끝이 맵다’라는 말은 ‘맵다’와 같은 미각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미각어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의 근원을 ‘신체화’에서 찾고자 한다.

4) 이선희 & 김미금(2019) 및 이선희(2019)는 한·중 ‘달다’류 어휘, ‘쓰다’류 단어의 의미 확장 그리고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각어의 대조 연구(권희정, 2008; 梁琪, 2014; 김순자, 2015; 이선희, 2019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맵다(辣)류 미각어를 단일 대상으로 삼아 논의한 연구를 찾기 어렵고 한·중 대조 연구로서 ‘맵다(辣)류 미각어를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 중,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주로 다의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체제된 의미 확장의 과정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각어와 관련된 연구 중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맵다’류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북경대 중국어 말뭉치(CCL, 北大漢語語料庫)와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을 활용하여,⁶⁾ ‘맵다’류 어휘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신체화’에 기초하여 두 언어에서 그들의 의미 확장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이는 한·중 대조연구로서 언어·문화권에 따른 언어 사용자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⁷⁾ 추후의 한국어 또는 중국어의 미각어 교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2. 인지언어학에서 의미 확장의 원리

2.1. 인지언어학에서의 신체화

신체화(embodiment)는 인지언어학의 기본적인 관점 중 하나이다. 이는 인지 과정⁸⁾에서 인간의 신체성⁹⁾의 작용 양상을 가리키며, 실제 환경 속에서 기능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여러 가

-
- 5) 한·중 ‘매운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의미 확장의 대조 연구로서 김순자(2015)가 있다. 이 연구에서 중국어 매운맛 어휘를 선정하여 <신화사전>에서 제시된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어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태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맵다’류 어휘의 확장 의미를 분류할 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 및 느낌’, ‘행위 및 상황에 대한 심리적 태도’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평가’, ‘느낌’, 그리고 ‘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확장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6) 해당 자료에서 나온 일부 예문들은 어떠한 의미 확장의 용법도 찾을 수 없고 일부분 의미 확장의 예문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예문을 만들어 보충했으며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들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했다. 또한 기본적인 미각어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现代汉语词典(第6版)을 검색하여 정리했다. 물론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에서 나타난 용례를 연구 자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신어에서 나타난 의미 확장 양상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위 말뭉치는 두 언어의 대표적인 말뭉치로서 두 언어에서 나타난 개념화의 경향성 및 의미 확장의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7) 한국어와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확인된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함으로써 문화권에 따른 감정의 특수성, 그리고 문화 일반적인 감정의 보편성을 규명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임지룡 2006, p. 49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8) ‘인지 과정’이란 개념 주체가 지각된 사태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고 구조화하고 코드화(emcode)하며, 행동이나 발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임지룡 외 옮김, 2004, p. 172).
 - 9) 신체성은 인간의 몸에서 출발한 경험을 의미하며, 이는 추상적인 사로 과정이 우리 몸의 경험에서부터

지 생물학적 능력, 신체 및 사회적 경험을 뜻한다(임지룡, 2008, p. 77, 재인용). Rohrer(2007, p. 26)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이러한 인지적·물리적 신체화가 개념적·언어적 인지 체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신체화에 기초하여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의미는 궁극적으로 신체화되어(embodied)있다고 할 수 있다(석수영, 2020, p. 14). 이는 신체화로부터 언어의 의미까지 이어지는 동적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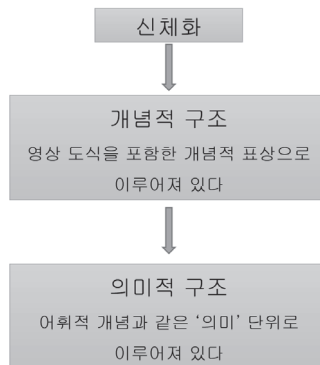


그림 1. 신체화로부터 언어의 의미까지(출처: 석수영, 2020, p. 37)

임지룡(2007, p. 2)에서 의미가 신체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체화된 인지 정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머릿속에 추상적인 사고 과정은 몸의 신체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신체화된 인지 정립’의 관점에 입각할 때, 언어에서 나타난 감정 표현과 감각어 의미 확장의 원리와 양상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2. 의미 확장 및 개념적 혼성 이론

신체화의 의미 확장은 또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와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에 의해 수행된다(임지룡, 2007, p. 5). 개념적 환유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주의¹⁰⁾ 능력, 참조점 능력에 관여하고 있다(석수영, 2020, p. 43). 환유는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임지룡, 2008, p. 74). 은유적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Ungerer & Schmid(1996, p. xii)의 연구에서 체험주의(experientialism)¹¹⁾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은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출발된다는 인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10) ‘주의’란 몇 가지 대상 중 하나 또는 소수의 것애다가 의식을 초점화하여 집중하는 심리 작용을 말한다(석수영, 2020, p. 43).

11) 체험주의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신체적 체험을 겪으면서 추상적인 사고 및 연상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

인간은 사물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을 지각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며, 이들을 개념화하므로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도 신체적인 감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이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개념적인 유사성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적 은유와는 달리, 개념적 환유는 두 가지 개념의 유사성으로 인해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환유 이론은 Lakoff & Johnson(1980)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통 ‘X로 Y를 대신하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X와 Y는 동일하게 개념 영역(conceptual domain)에 속한다. 그러나 ‘x는 y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개념적 은유는 환유와 달리 x와 y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며, x는 목표 영역(target domain)에 속하고 y는 근원 영역(source domain)에 속한다. 즉,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개념 영역을 또 다른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개념화 과정’이고, 환유는 ‘하나의 개념 영역에 해당되는 두 요소 사이의 사상(mapping)에 의한 개념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윤영은, 2013, p.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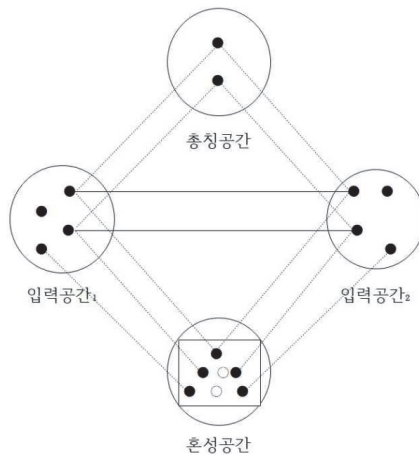


그림 2. 개념적 통합 연결망(김동환, 2013, p. 474, 재인용)

개념적 혼성 이론은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이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의미의 생성 과정을 밝히는 인지언어학의 방법론 중 하나다(김동훈, 2023, p. 116). 개념적 혼성 이론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비롯한 객관주의 언어학에서의례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

이다(임지룡, 2005, p. 202).

하는 동일성, 통합, 상상력의 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핵심 주제다(김동환, 2013, p. 469). Fauconnier (1997, p. 150)에 따르면 개념적 혼성이 발생할 때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공간횡단 사상(cross-space mapping), 총칭공간(generic space), 그리고 혼성공간(blended space)이다. 공간횡단 사상은 다양한 입력공간 사이에 체계적인 대응 양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원은 정신 공간을 나타내며, 원 안의 점들은 입력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로 실체, 실체의 속성, 실체들 간의 관계 등을 나타낸다(김동환, 2023, p. 116). 총칭공간은 입력공간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추상적인 구조 및 조직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구조이다. 혼성공간은 두 가지의 입력공간이 선택적으로 투사함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혼성공간은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의 요소들 간 선택적 투사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선택적 투사는 입력공간들 간의 공간횡단 사상에 의해 가능하며, 공간횡단 사상은 총칭공간에 의해 한정되며, 이처럼 입력공간과 혼성공간, 총칭공간은 밀접하게 연결된 망을 형성하는데, 이를 개념적 통합 연결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이라고 한다(김동환, 2013, p. 474 재인용).

이러한 개념적 혼성 이론은 입력공간의 구축, 입력공간 간의 공간횡단 사상, 그리고 입력공간부터 혼성공간으로의 투사 등 명확한 인지 과정을 통해 언어 현상, 특히 언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한·중 ‘맵다’류 미각어의 기본적 의미

3.1. 한·중 ‘맵다(辣)’류 미각어의 형태적 특징

한국어 단어는 주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는데, 복합어 안에 또 파생어와 및 합성어로 나누며, 파생어는 접두사에 어근이 결합된 접두파생어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접미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맵다’의 경우, 접두파생어로 접두사와 미각어근 ‘맵다’가 결합된 형태, 접미파생어로 미각어근 ‘맵다’와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 및 합성어 형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낸다.

표 1. 한국어 ‘맵다’류 어휘의 형태 분류

단일어		‘맵다’	
복합어	파생어	접두파생어(접두+어근)	핵맵다
		접미파생어(어근+접미)	매콤하다, 매콤하다, 맵살스럽다, 맵시롭다, 맵자하다
	합성어	어근+어근	맵짜다, 맵차다, 맵싸하다, 맵디맵다

중국어 단어는 주로 单词(단순어), 合成词(합성어), 缩略词(축약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에서는 复合词(복합어), 重叠词(중첩어), 附加词(파생어)를 포함하며, 복합어에서는 联合型(연합식), 偏正式(수식식), 补充型(보충식), 动宾型(술목식), 主谓型(주술식)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파생어는 前缀+词根(접두사+어근), 词根+后缀(어근+접미사) 두 가지로 분류된다(黄伯荣 & 廖序东, 1991, pp. 222-224). 중국어 '맵다(辣)'류 미각어를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어 '맵다(辣)'류 어휘의 형태 분류

单纯词 (단순어)	辣, 酸甜苦辣, 辣根, 辣椒	
复合词 (복합어)	联合式(연합식)	甜辣, 麻辣, 泼辣
	偏正式(수식식)	辣味
	补充式(보충식)	辣妹, 辣椒面, 辣椒水
	动宾式(술목식)	吃香喝辣
	主谓式(주술식)	해당 없음
合成词 (합성어)	重叠词 (중첩어)	辣辣的
附加词 (파생어)	前加式(前缀+词根) (접두사+어근)	辛辣, 毒辣, 火辣
	后加式(词根+后缀) (어근+접미사)	火辣辣, 热辣辣
缩合词 (축약어)	해당 없음	

표 1 및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단어의 중심이 되는 어근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비롯한 다른 형태소와 덧붙여 단어가 구성되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파생 미각어가 생성된다. 한국어의 파생어의 형태구조가 복잡한 반면 중국어의 파생어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는 어휘 형태상의 변화가 없는 고립어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휘 결합 능력이 강하므로 다양한 합성 미각어가 생성된다.

3.2. 한·중 ‘맵다(辣)’류 미각어의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¹²⁾과 现代汉语词典 第6版(2012)¹³⁾에서 기술된 ‘맵다(辣)’ 의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와 중국어 ‘맵다(辣)’류 미각어의 사전 기술 양상 대조

		한국어 ‘맵다’	중국어 ‘辣’
기본 의미	미각	① 고추 또는 겨자와 같은 맛이 알알하다.	① 像姜、蒜等刺激性味道 (생강/마늘과 같이 맛이 자극적이다)
	촉각	② 날씨가 몹시 춥다.	해당 없음
확장 의미	후각	③ 연기 따위가 눈 또는 코를 아리게 하다.	② 辣味刺激(口、鼻或眼) (매운 맛이 (입, 코, 눈)을 자극한다)
	추상	④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③ 凶狠, 狠毒 (독하다, 사납다)
		⑤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	해당 없음

‘맵다’와 ‘辣’는 기본 개념 형성의 근원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추의 맛과 같은 맛으로 두 언어에서 공통적인 기본 의미를 가진다. 사전에서 게재된 의미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고추, 겨자, 중국어에서는 생강, 마늘과 같은 매운 맛을 비유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다르지만 국어사전과 중국어사전에서 ‘맵다’와 ‘辣’의 기본적 의미는 동일하게 매운 맛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의 맛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개념 형성의 근원점이 한국어의 경우, ‘고추, 겨자’, 중국어에서 ‘생강, 마늘’인데, 이는 두 언어가 단지 많은 자극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성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석수영, 2020, p. 115). 최현석(2013)에 따르면 ‘매운 맛’에 대하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래 지속되는 ‘뜨거운 형태’, 또 하나는 매운 맛을 느끼지만 뒤에 남지 않는 ‘날카로운 형태’이다. 뜨거운 형태는 고추, 생강 등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매운맛인데, 이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뜨겁게 가열해도 매운맛이 살아있고, 날카로운 형태는 열에 약하여 가열하면 매운맛이 사라지는데, 겨자나 마늘과 같은 음식에 의해서 유발된다(최현석, 2013, p. 258).

‘맵다’와 ‘辣’의 확장 의미를 살펴보면 추상적인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는데, 사나움을 표현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맵다’와 ‘辣’는 대부분 고통스럽고 싫증이 나는 느낌이나 기억과 경험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공통점 외에도 두 언어에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한국어의

12) <https://stdict.korean.go.kr>

13)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2012.

경우 날씨가 몹시 추움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는 이러한 의미 항목은 없다. 둘째,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경우 ‘辣’는 동사, 부사의 용법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아래 4장에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맵다’와 ‘辣’가 단일어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를 구성형태소로 포함되어 있는 복합어 및 앞서 살펴본 단어들과 한국어 말뭉치 및 중국어사전에서¹⁴⁾ 수록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나아가 이 단어들의 의미 구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4. 한·중 ‘맵다(辣)’류 미각어의 추상적 의미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맵다(辣)’의 예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맵다’의 확장 의미는 후각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감정/성격 영역, 일처리 방식 영역, 사람 영역, 날씨 영역 등 7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의 ‘辣’는 미각 영역, 후각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감정/성격 영역, 일처리 방식 영역, 날씨 영역 총 7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맵다’와 ‘辣’의 확장 의미에 대해 미각 영역, 후각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감정/성격 영역, 일처리 방식 영역, 사람 영역, 날씨 영역 등 8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1. 미각 영역

중국어에서 ‘辣’는 미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혹은 ‘좋은 대접을 받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한국어 ‘맵다’류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1) a. 他们家一年到头，总是吃香喝辣。

(그 집은 일년 내내 늘 맛있는 걸 먹고 잘 산다.)

b. 我到了北京受到了朋友的热情款待，一直吃香的喝辣的。

(나는 북경에 가서 친구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고 잘 먹었다.)

예문(1a)와 예문(1b)에서 ‘辣’는 술에 대한 1차적인 맛 평가가 아닌 좋은 대접을 받거나 좋은 삶을 사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은 술을 즐겨 먹는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좋은 대접을 받거나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4) 한국어 말뭉치는 연세말뭉치용례검색 시스템(<https://ilis.yonsei.ac.kr/corpus/#/>), 중국어 말뭉치는 북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CCL말뭉치(<http://ccl.pku.edu.cn>)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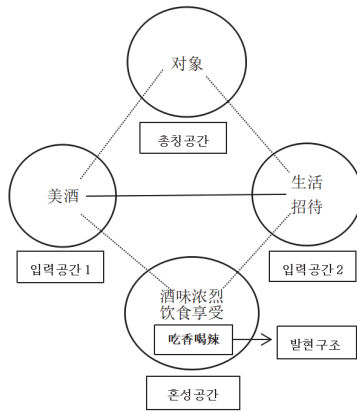


그림 3. '吃香喝辣'의 혼성공간

그림 3에서 입력공간 1의 미주(美酒, 맛있는 술)는 입력공간 2의 삶과 대접에 대응된다. 총칭공간을 통해 두 입력공간의 공통 요소인 '대상(대상)'은 이와 같은 공간횡단 사상의 동기를 제공한다. 혼성공간에서는 입력공간 1과 입력공간 2의 요소인 '술이 맵고 좋다'와 '삶의 질이 좋거나 대접이 좋다'라는 속성이 투사되어 '吃香喝辣'라는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2. 후각 영역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맵다'와 '辣'는 후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자극적인 냄새를 나타낸다'를 뜻을 갖는다.

- (2) a. 준호가 고추의 **매운 냄새**를 내뿜으면서 말했다.
- b. 짙은 **연기가 매워서** 그는 그냥 컵물을 흘렸다.
- c. 空气中弥漫着**辣椒的辣味**.
 (공기 중에는 고추의 매운 냄새가 흘러넘친다.)
- d. 烟熏得太多, 鼻子**辣酥酥的**.
 (연기를 너무 많이 맡았더니 코가 맵싸하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일하게 예문(2a) 및 (2c)과 같이 매운 맛이 느껴지는 음식물, 즉 고추의 냄새를 맵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냄새를 맡았을 때 느껴지는 매운 맛에 대한 느낌을

15)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맵다'류 어휘의 다른 예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예컨대, 김순자 (2015, p. 9)에서 중국어 '맵다'류 어휘는 [+쾌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예문(2b), (2d)에서 냄새에 대한 이차적인 판단으로 자극적인 냄새를 ‘맵다’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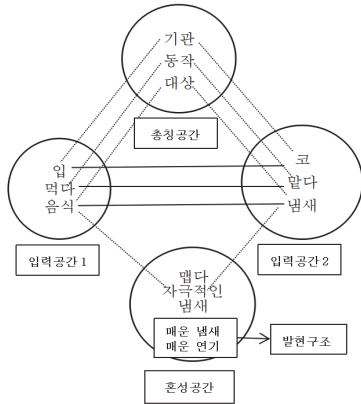


그림 4. ‘매운 냄새’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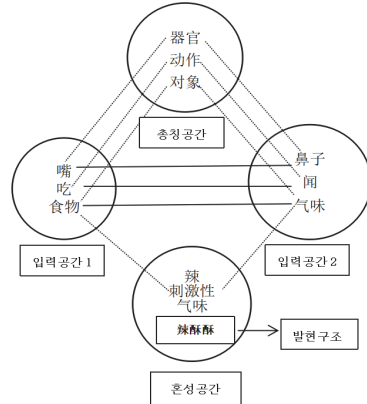


그림 5. ‘辣酥酥’의 혼성공간

그림 4, 그림 5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입력공간 1에서 인식한 매운 맛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입력공간 2의 냄새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였다. 매운 맛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자극적인 냄새에 대한 인지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혼성공간에서 ‘맵다’와 ‘자극적인 냄새’와 같은 요소에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서 각각 ‘매운 냄새’, ‘辣酥酥’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매운맛’(홍분)의 ‘화끈함’이나 ‘뜨거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辣酥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듣는 청자도 ‘홍분’과 ‘화끈하고 매운맛’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辣酥酥’이 나타내는 의미를 실감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이범열, 2016, p. 446).

4.3. 시각 영역

한국어와 중국어 ‘맵다(辣)류 미각어는 공통적으로 시각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만, 두 언어에서 확장된 의미는 다르다. 한국어에서 ‘매섭다’는 시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차갑고 흉악한 눈초리를 나타낸다’는 뜻을 갖으며, 중국어에서 ‘辣’는 시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몸매가 예쁘다’는 뜻을 갖는다.

- (3) a. 민호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봤다.
- b. **매서운 눈초리**로 못 사람들의 질타에 맞서며,
 기꺼이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리라.

- c. 身材火辣의姐姐们都在哪儿啊?
(몸매가 섹시한 언니들은 다 어디 갔는가?)
- d. 今天的话题是火辣身材. (오늘의 화제는 섹시한 몸매이다.)

우리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몸과 얼굴이 자연스럽게 뜨거워진다. 이러한 신체적 느낌이 몸매 시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 되어 얼굴을 뜨겁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몸매, 섹시한 몸매’를 표현한다. 좋은 몸매를 볼 때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실제 반응을 맛을 통해 신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고통스러운 느낌은 시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흉악한 눈초리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흉악한 눈초리를 볼 때 우리 몸의 반응을 맛을 통해서 신체화하는 것이다. 위의 예문과 같이 중국어에서 ‘辣’ 혹은 ‘火辣’는 몸매를 수식할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 ‘매섭다’는 사람의 눈초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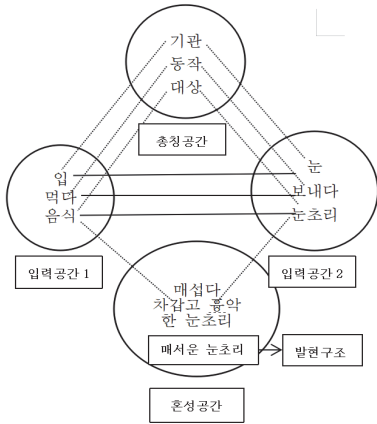


그림 6. ‘매서운 눈초리’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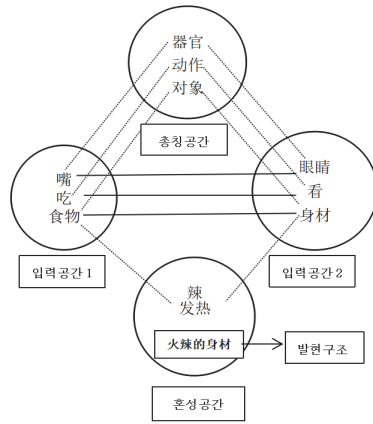


그림 7. ‘火辣的身材’의 혼성공간

그림 6의 경우 입력공간 1에서 느껴진 매운 맛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 입력공간 2의 눈초리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눈초리를 개념화하여 ‘매서운 눈초리’의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이는 감각 영역 내에서 사용되던 ‘맵다’의 경험이 신체화 과정을 통해 부정적 분위기(추상적)에 대한 경험주의 평가로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해미, 2014, p. 28).

그림 7과 같이 입력공간 1에서 느껴진 매운 맛에 대한 뜨겁고 열이 나는 인식이 입력공간 2의 몸매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얼굴과 몸에 열이 나게 할 정도로 좋은 몸매를 개념화하여 ‘火辣的身材’의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4. 청각 영역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맵다’와 ‘辣’는 청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매서운 질책’ 혹은 ‘듣기 싫은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 (4) a. 그는 선생님의 **매서운 질책**을 받았다.
 b. 부모님의 **매서운 비평**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c. 俊昊唱歌的声音太**辣**耳朵了.
 (나는 준호가 노래하는 것을 듣기 너무 싫다.)

발화 내용이 청자로 하여금 ‘불쾌한 느낌’ 혹은 ‘듣기 싫은 느낌’을 유발시키는 말을 ‘매섭다’과 ‘辣’를 통해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위 예문 (4a), (4b)에서 매운 맛을 나타내는 단어 ‘매섭다’는 ‘질책’, ‘비평’ 등의 부정적 명사와 결합하여 정도가 심한 지적을 표현한다. 예문 (4c)에서 매운 맛을 나타내는 단어 ‘辣’는 ‘耳朵’과 결합하여 귀에 듣기 힘든 소리를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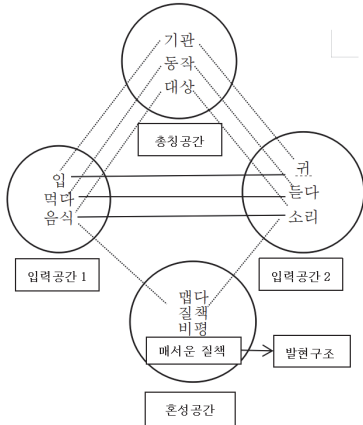


그림 8. ‘매서운 질책’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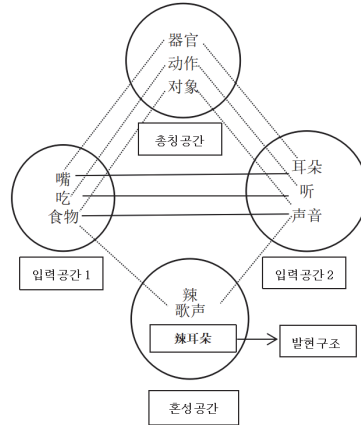


그림 9. ‘辣耳朵’의 혼성공간

그림 8, 그림 9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입력공간 1에서 느껴진 매운 맛에 대한 고통스럽고 정도가 심한 부정적 인식이 입력공간 2의 ‘소리’와 ‘귀’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정도가 심하고 듣기 고통스러운 소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개념화하여 각각 ‘매서운 질책’, ‘辣耳朵’의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5. 감정/성격 영역

아래에서 ‘매운 맛’이 감정 및 성격을 표현하는 다양한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도록 한다. 한국어 ‘맵다’는 감정 및 성격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 ‘감동스러움’의 의
 미를 갖게 되며, 중국어 ‘辣’는 ‘독한 성격’의 의미를 갖게 되어 한국어의 의미 확장과 과정
 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4.5.1. 감동스러운 감정

한국어에서 ‘맵다’는 감정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감동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데, 중
 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의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 (5) a.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서 **코끝이 매워지**셨다.
- b. 민수는 내 말에 감동되어서 **코끝이 매워**졌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눈물이 나올 듯한 느낌은 감동을 받을 때의 감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체적 체험을 토대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운 맛’은 ‘감동스러움’
 의 감정을 나타낸다.¹⁶⁾ 한국어에서 매운 맛을 나타내는 단어 ‘매섭다’는 ‘코끝’이라는 단어
 와 결합하여 코끝이 매워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동스러운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의
 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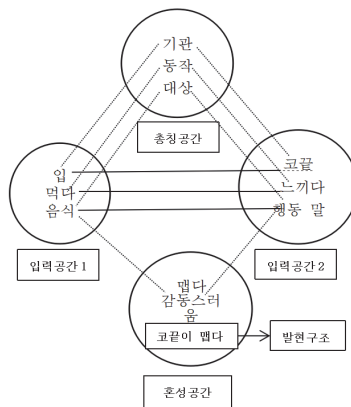


그림 10. ‘코끝이 맵다’의 혼성공간

16) 김순자(2015)에서 제시하듯이, 한국어에서는 ‘맵다’가 신체 부위 ‘코끝’과 고정적으로 호응하여 슬픔, 아쉬움 등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 한국어는 ‘코끝이 맵다’의 고정적인표현 형식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운맛 허용사로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김순자, 2015, p. 125).

그림 10과 같이 한국어에서 입력공간 1의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눈물이 나올 듯한 인식이 입력공간 2의 코끝이 매워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감동스러움 감정을 개념화하여 ‘코끝이 맵다’와 같은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한국어 ‘맵다’류에서 감정으로의 의미 확장은 생리 현상의 유사함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감동을 받았을 때의 신체적 현상 중 하나는 눈물이 나게 되는데, 이때 코끝에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생리적 현상과 비슷하게, 코끝이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생리적 현상의 유사성이 서로 연관되며, ‘맵다’와 결합된 고정적 표현이 형성되어 인간의 심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5.2. 독한 성격

중국어에서 ‘辣’는 감정 및 태도 성격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잔인하고 무자비한 성격을 나타낸다.

(6) a. 那个人好生凶狠 ‘毒辣’

(이 사람은 대단히 흉악하고 포악하다.)

b. 她性情毒辣, 周围的人都不愿意接近她.

(그녀는 성미가 지독스러워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

위의 예문에서 ‘毒辣’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성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강력한 매운 맛을 가진 음식물에 대한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람의 성격이 강력한 매운 음식물처럼 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辣’가 사람의 성격에 적용되어 사용될 때는 ‘맵다’의 통각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잔인한 성격, 신랄한 태도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픔(통각)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두 속성간의 사상에 의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김순자, 2015, p. 120).

또한, 중국어에서 ‘辣’는 감정 및 태도 성격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나운 성격’을 나타내며, 이 때는 문장의 주체가 보통 여성이 된다.

(7) a. 这女人好泼辣. (이 여인은 정말 사납다.)

b. 我不喜欢性格凶悍泼辣的女生.

(나는 성질이 흉악하고 사나운 여자를 좋아하지 않다.)

위의 예문에서 ‘泼辣’는 사나운 성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강력한 매운 음

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람의 성격이 강력한 매운 음식물처럼 자극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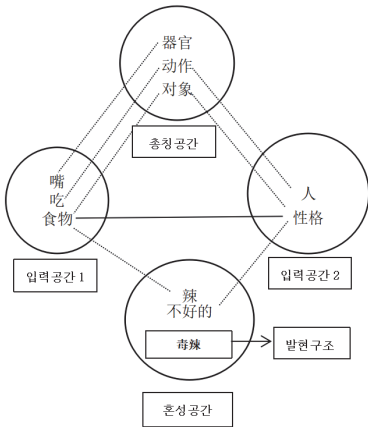


그림 11. '毒辣'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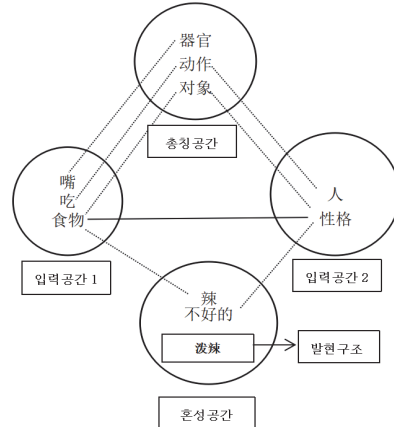


그림 12. '泼辣'의 혼성공간

그림 11과 같이 중국어에서 입력공간 1의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인식이 입력공간 2의 사람의 성격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사람의 독한 성격을 개념화하여 '毒辣'와 같은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그림 12와 같이 중국어에서 입력공간 1의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입력공간 2의 사람의 성격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사람의 사나운 성격을 개념화하여 '泼辣'와 같은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辣'는 사람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勐烈], [凶悍]의 의미를 드러내어 [잔혹하다], [악랄하다], [독하다]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한국어에 비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김순자, 2015, p. 118).

4.5.3. 열정적임

중국어에서 '辣'는 감정 및 태도 성격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열정적임을 나타낸다.

(8) a. 我的妹妹性格火辣热情.

(내 여동생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다.)

b. 秀妍性格火辣外向, 因此有很多的朋友.

(수연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친구가 되게 많다.)

위의 예문에서 ‘火辣’는 열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사람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뜨거운 느낌처럼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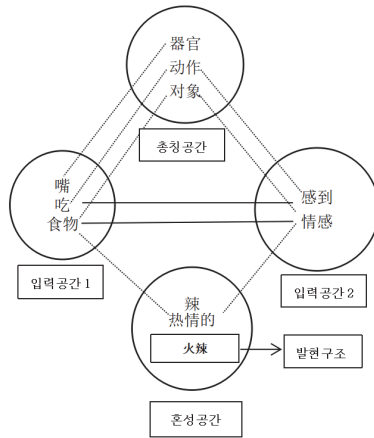


그림 13. ‘火辣’의 혼성공간

그림 13와 같이 중국어에서 입력공간1의 매운 음식을 먹을 때의 뜨거운 인식이 입력공간 2의 사람의 감정과 성격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사람의 열정적인 감정과 성격을 개념화하여 ‘火辣’와 같은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6. 일처리 방식 영역

한국어에서 ‘맵다’는 일처리 방식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일 처리가 깔끔하여 재빠름을 나타내며, 중국어에서 ‘辣’는 해당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잔인한 수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에 대하여 김순자(2015)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일처리 수단이나 방법의 영역에서도 성격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로 전이되는데, 이는 통각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일처리 방식의 영역에서도 성격 영역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는데, 이는 역시 통각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이러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한국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9) a. 동민은 손끝이 매워서 시키는 일들을 척척 해냈다.
- b. 그녀는 손끝이 맵다.

- c. 不知道他用什么辣手才聚集了这么多不义之财.
(그는 어떤 잔인한 수단을 써서 이렇게 많은 부정축재를 했는지 모르겠다.)
- d. 我实在没办法继续下这样的辣手.
(이런 지독한 행동을 나는 계속할 수가 없다.)

위 예문 (9a) 및 예문 (9b)에서 매운 맛을 나타내는 단어 '맵다'와 '손끝'과 결합하여 일 처리가 깔끔하여 재빠름을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맵다'가 매운 음식물을 먹을 때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⁷⁾ 이와 달리, 예문 (9c) 및 예문 (9d)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어에서 '맵다'는 '일처리 방식'의 영역에서 '잔인한 수단'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확장된다.¹⁸⁾ 음식의 강력한 매운 맛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을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나아가 강력한 매운 맛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 처리 방식이 좋지 않은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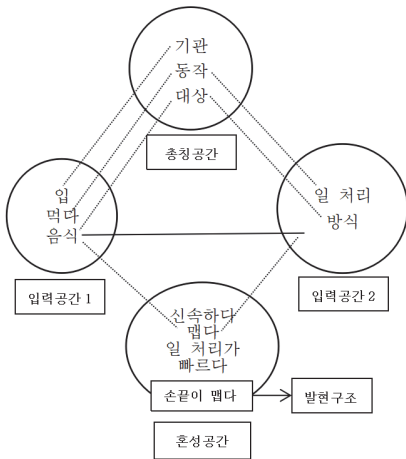


그림 14. '손끝이 맵다'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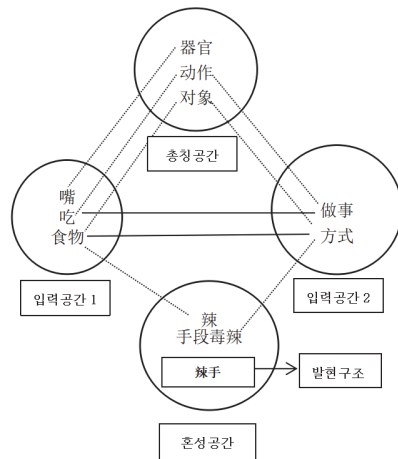


그림 15. '辣手'의 혼성공간

매운 음식물을 먹을 때의 느낌이 일, 사건 처리 방식 영역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해 개념적 혼성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매운 맛처럼 어떤 사람이 일을 깔끔하고 재빠

17) 한국어에서 '맵다'는 일처리하는 능력(솜씨)에서 [야무지다], [치밀하다], [예리하다]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전이된다(김순자, 2015, p. 121).
 18) 중국어에서 일을 처리하는 수단이나 방법, 일처리 과정을 드러내는 데 매운맛을 사용하며, [악랄하다], [잔혹하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전이된다(김순자, 2015, p. 121).

르게 처리할 수 있다, 즉 ‘손끝이 맵다’라는 발현구조를 생성하였다. 그림 13에서 입력공간 1의 강력한 매운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 관한 경험이 입력공간 2의 어떤 일에 대한 처리 방식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혼성공간에서 ‘잔인한 수단’은 부정적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되었다. 결과 개념적 혼성을 통해서 ‘辣手’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7. 능력 영역

한국어에서 ‘맵다’는 사람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 ‘어리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의미 확장 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10) a. 작은 고추가 훨씬 더 **맵다**.
 b.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회정이가 나이는 어려도 강단이 있어서 이번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위의 예문에서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타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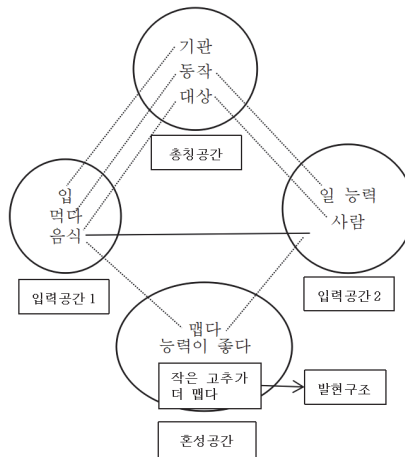


그림 16. ‘작은 고추가 맵다’의 혼성공간

매운 맛에 대한 느낌이 사람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개념적 혼성을 통해 작은 고추의 강력한 매운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만만하다고 보이지만 능력이 굉장히 좋다, 즉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발현구조를 생성하였다.

4.8. 날씩 영역

한국어에서 ‘맵다’는 날씩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 ‘춥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중국어에서 ‘辣’는 날씩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나 ‘햇빛이 강하다’의 의미를 갖게 된다.

- (11) a. **매서운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b.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매서운 날씨**이다.
- c. **매운 겨울바람**을 버틸 수 없다.
- d. 中午**毒辣的**阳光晒得他发晕。
 (정오의 **맹렬** 때문에 그는 현기증이 났다.)
- e. 虽然今天阳光很**毒辣**, 但是有风, 天气还不是太热。
 (오늘은 햇볕이 강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아직 그리 덥지는 않다.)

위 예문(13 a, b, c)에서 매운 맛을 나타내는 단어 ‘매섭다’와 ‘맵다’는 ‘찬바람’, ‘날씨’, ‘겨울바람’ 등의 날씩 명사와 결합하여 몹시 추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매섭다’와 ‘맵다’가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것이다. 버틸 수 없는 강한 매운 맛에 대한 경험은 한국어에서 추운 날씨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낸다. 예문(13 d, e)에서 ‘辣’는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는 단어 ‘毒’과 결합하여 몹시 강한 햇빛을 나타낸다. 이것은 ‘辣’가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에서 다시 의미가 확장되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강한 햇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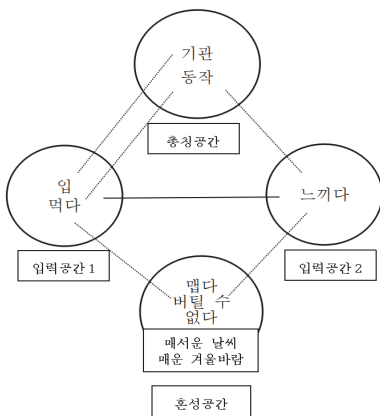


그림 17. ‘매서운 날씨’와 ‘매운 바람’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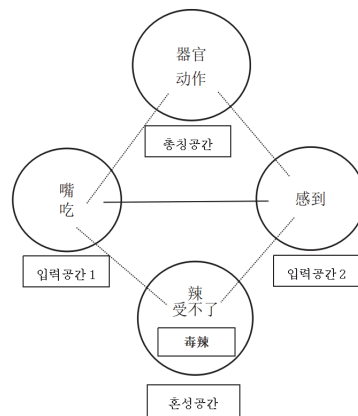


그림 18. ‘毒辣’의 혼성공간

그림 17에서 입력공간 1의 매운 음식물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입력공간 2의 추위에 대한 느낌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혼성공간에서 ‘버티지 못하는’ 부정적 감정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결과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매서운 날씨’와 ‘매운 겨울바람’이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그림 18에서 입력공간 1의 매운 맛을 가진 음식물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입력공간 2의 강한 햇볕에 대한 느낌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혼성공간에서 ‘참을 수 없다’는 부정적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이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毒辣’이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4.9. 소결

이상으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확장 의미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어와 중국어 ‘맵다(辣)’류 미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의 대조

확장 영역	확장 의미	한국어 ‘맵다’류		중국어 ‘辣’류	
		양상	의미	양상	의미
미각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혹은 좋은 대접을 받다	-	-	+	긍정
후각	자극적인 냄새	+	부정	+	부정
시각	차갑고 흉악한 눈초리 혹은 몸매가 좋다	+	부정	+	긍정
청각	매서운 질책 혹은 듣기 싫은 소리	+	부정	+	부정
감정/성격	감동스러움	+	긍정	-	
	독한 성격	-	-	+	부정
	열정적임	-	-	+	긍정
일처리 방식	잔인한 수단	-	-	+	부정
	일 처리가 깔끔하여 재빠름	+	긍정	-	-
능력	키가 작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	+	긍정	-	-
날씨	추움	+	부정	-	-
	맹렬	-	-	+	부정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중 ‘맵다(辣)’류 어휘를 대상으로 신체화의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입각하여 의미 확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대조 분석을 통해서 한·중 화자의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언어 의미 확장 과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고, 대조 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맵다’와 ‘辣’의 사전적 기술과 기본 의미를 대조·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맵다’와 ‘辣’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언어가 속하고 있는 체계에 따라 단어의 형성도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파생 미각어가 생성되는데,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합성 미각어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중 ‘맵다(辣)’류 어휘의 사전 기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기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의 확장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두 언어에서 ‘맵다(辣)’의 기본 의미는 모두 매운 음식물의 맛으로 정의되지만, 확장 의미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맵다’와 ‘辣’의 확장 의미를 대조·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매운 맛에 대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 경험에 따라 부정적 가치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 긍정적 가치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매운 맛에 대한 감각적 자극을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 시각, 청각, 감정 및 태도 성격 등 다양한 측면으로 표현하는 공감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¹⁹⁾ 그 중에서 특히 ‘감정 및 태도, 성격’ 영역에서 의미 확장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확장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거의 비슷한 다양화 정도로 표현되고 있으나 반대된 의미 양상도 존재한다. 예컨대, 시각 영역의 경우 한국어에서 ‘맵다’는 차갑고 흉악한 시선이라는 부정적인 확장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중국어에서 ‘辣’는 몸매가 좋다는 긍정적인 확장 의미를 가진다. 넷째, 중국어의 품사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미각 형용사 ‘辣’가 동사 혹은 부사로도 사용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중 미각어 ‘맵다(辣)’류 어휘의 의미 확장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앞으로 한국어 또는 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 공감각이란 한 감각 영역의 체험이 다른 감각 영역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김중현, 2001, p. 25).

참고문헌

- 권희정. (2008). 韓中基本味覺語 의미확장 공통성 연구. *南道文化研究*, 15, 7-38.
- 김동환. (2013).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 김동훈. (2023). 개념적 혼성 기반 보조용언 '-고 말다'의 의미 구성 연구. *어문연구*, 116, 5-30.
- 김순자. (2015). 한·중 매운맛 형용사의 의미 확장 대조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6, 101-133.
- 김중현. (2001). 국어 공감각 표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담화와 인지*, 8(2), 23-46.
- 김해미. (2014). '맵다' 계열 어휘의 확장 의미 연구. *국어국문학*, 169, 5-48.
- 문금현. (2015).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 양상. *새국어교육*, 102, 391-427.
- 석수영. (2014). 한·중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 미각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68, 191-214.
- 석수영. (2020). 한·중 감각어의 신체화 연구. 역락.
- 양기. (2014). 한·중 미각 형용사 대조 연구: 시다, 달다, 쓰다, 맵다, 짜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은. (2013). 언어의 의미 및 화용 이론과 실제: 형식 의미론적 관점과 인지 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경수. (2012). 한국어 미각형용사의 의미와 개념화.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범열. (2016). 현대중국어의 미각어를 통한 감정 표현. *中國語文學誌*, 57, 425-452.
- 이선희. (2019). 한중 미각어 '쓰다', '빡'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및 개념화 양상 대조연구. *中國學*, 68, 101-122.
- 이선희·김미금. (2019). 한중 미각어 '달다', '甜'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및 의미구성양상 대조 연구. *中國學論叢*, 64, 75-98.
- 이승명. (1988). 국어 미각 표시 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00, 335-358.
- 임지룡, 요시모토 하지메, 이은미, 오카 도모유키 옮김. (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05) '사랑'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87, 201-233.
- 임지룡. (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40, 1-31.
- 임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17) 감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연구*, 63, 335-372.
- 최현석. (2013). 인간의 모든 감각. 서해문집.

- 황혜진. (2002). 미각 형용사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auconnier, G., & Turner, M. (1994). Conceptual Projection and Milldle Spaces. Cognitive Science Technical Report 9401, San Diego.
- Fauconnier, G.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hrer, T. (2007). The body in space: Dimensions of embodiment. *Body, Language And Mind*, 1, 339-377.
- Ungerer, F., & Schmid, H. J.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임지룡 · 김동환 옮김(1998).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 黄伯荣·廖序东. (1991).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2012). 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 吕贞男. (2012). 汉韩味觉词的语义与隐喻化特征—酸/甜/苦/辣/为主. *중어중문학*, 51, 385-412.

언어정보연구원 연세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 <https://ilis.yonsei.ac.kr/corpus/#/>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s://zh.dict.naver.com>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 <http://ccl.pku.edu.cn>

관영옥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생
전화: (02)820-6653
이메일: candice0606@cau.ac.kr

Received on July 16,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5, 2023

Accepted on September 30, 2023